

2000년 10월 03일 화요일 12:42 [권선무 배한진 기자]

‘평준화’ 전면 실시 힘 실릴 듯

본사 단독입수 ‘교육개발원 중간 보고서’ 파장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97년 입학 고등학생 6701명의 3년간 점수변화 추적조사 중간보고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평가된다. 이 보고서로 그간의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처음 입증됐기 때문이다.

◆조사의 배경=이 조사는 현재 고교 비평준화지역으로 남아있는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시와 과천·의왕시 등 경기도 7개 신도시의 교육관련 단체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평준화 전면도입을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제3의 공정한 연구기관에 의뢰해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자며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단순한 연구발표 자료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교육의 방향전환을 예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 신도시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특히 보고서중 본사가 단독 입수한 3년간의 학업성취도 변화부분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자립형 사립고교의 실효성까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인식돼 교육계 안팎의 시선이 쏠려 있었다.

◆공개된 내용=보고서에 따르면 평준화 고교 학생이 비평준화 고교 학생보다 수능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12점 가량이 향상됐다.

이는 실력이 비슷한 학생이 평준화 고교 대신 비평준화 고교에 진학한다고 가정할 경우, 3년 뒤에는 12점의 수능성적을 손해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점수별로는 40점 이상 켜 학교가 평준화 지역 11개 고교중 절반에 육박하는 5개교나 됐지만, 비평준화 지역 17개 고교에서는 단 1개교(대상 학교수의 5.9%)에 그쳤다. 30점 이상 오른 학교는 평준화 고교중 9개교(81.8%)였지만, 비평준화 고교중에는 5개교(29.4%)에 머물렀다.

특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입시 명문고교라는 성남시 한 고교의 경우 3년간의 평균점수

향상은 32.97점으로 조사돼, 일반 평준화 고교 전체의 평균점수 향상(32.90점)보다 6.63점이 나 떨어졌다.

◆중간보고서의 의미=이 결과에 대한 한준상(韓駿相) 연세대 교육대학원장의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평준화 고교에 진학해 학교 안팎의 주목과 격려를 받게 되고, 이것이 학생들을 자극해 성적을 올린다는 소위 ‘피그말리온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의 꼬리’ 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편이 학습효과가 더 큰 것으로 입증됐다는 뜻이다. 그는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자립형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다고 해도 수능점수의 향상은 평준화 고교보다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조사가 전국의 상당수 고교 비평준화지역을 평준화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무·배한진기자>

<2000년 10월 04일수요일 10:22>[권선무]

평준화 고교 성적 더 향상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그동안의 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식 입증됐다. 오히려 평준화고교 학생이 비평준화 고교 학생보다 수능점수로 환산하면 3년간 평균 12점이 올라간 것으로 본사가 단독 입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정부 공식기관으로는 처음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별 입시의 존속 여부를 결정키로 한 분당 서현고, 일산 백석고 등 경기도 비평준화 선발고교들이 2002학년도부터 전면 평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함께 전국일반 인문계고교의 49%(588개)를 차지하는 비평준화선발 고교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개발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용역에 따라 2000년 2월에 졸업한 경기도내 고등학생 6701명에 대해 1학년 1학기~3학년 2학기의 3년간 모의고사 점수(400점 만점) 변화를 개별로 추적조사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평준화지역 11개 고교생 3206명의 평균점수 향상은 39.60점에 달했다.

반면, 비평준화지역 17개 고교생 3495명의 평균점수 향상은 27.61점에 그쳐 평준화지역 고교생보다 11.99점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평준화지역 17개 고교중 평준화지역 전체의 평균 향상 점수보다 낮은 학교는 16개 고교로 집계됐다.

최고점수의 경우 1학년 1학기 당시 비평준화지역은 평준화지역의 356.50점보다 14.60점 높은 371.10점이었지만, 3학년 2학기에는 두 지역 모두 389.70점으로 같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평준화지역 점수향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전체 평균뿐만 아니라 상위층 점수대에서도 평준화 고교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비평준화 고교보다 9.7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교육개발원과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4일간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고교평준화 전면도입 여부를 11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선무기자>

<2000년 10월 04일수요일 08:20>[권선무 배한진]

감금형 '고입학원' 성행

비평준화 고교입시 때문에 '학원지옥'으로 전락해 가는 경기도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최근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한 채 학생을 가둬놓거나 심지어 새벽 2시 넘게까지 불들어 두는 학원이 성업중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식의 교육이 입시에 유리하다며 왕복 1시간이 넘는 곳에서도 자녀를 이들 학원에 억지로 보내고 있어 신도시의 고교입시에 따른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3일 0시30분 경기도 덕양구 H중학교 2학년 김모(14·고양시 행신동)군은 여느때처럼 서틀 버스에 오를 때까지 일산구 H입시학원에 '감금'됐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원측이 학생들

통제를 명분으로 출입문의 셔터를 내려 잠가 버렸기 때문이다.

김군은 이날 학교수업이 끝난 뒤 오후 5시30분쯤 집근처까지 오는 학원의 셔틀버스에 올랐다. 학원은 밤 11시가 넘어 국어 영어 수학을 강의한 뒤, ‘자율학습’을 시켰다. 매 수업시간에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김군은 다음달엔 열등반으로 쫓겨나게 된다. 학원측은 김군 학년을 18개 반으로 편성해 매달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반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원 관계자는 “폐쇄회로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시간 출석체크를 해서 결석이나 조퇴한 학생은 바로 집에 알리고 있다”며 “셔틀버스로 편도 30분 이상 걸리는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자랑했다.

김군은 “왕복하는데만 1시간 20분쯤 걸리는 이 학원에 다니느라고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조차 축하해 줄 수 없었다”며 “고교 입시가 없는 서울로 이사가자고 부모님을 조르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분당지역 H학원의 경우 새벽 2시 넘게까지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것으로 악명 높다. M학원은 수강생 전원이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 신도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보습학원 가기’는 예정된 수순이다. 일산 B초등학교 4학년 이모(10·고양시 주엽동)양은 학원에 왜 다니느냐는 질문에 “반친구 50명중 40여명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엄마 아빠가 학원은 당연히 다니는 거라고 한다”고 천진하게 말했다.

학부모 선호속 73%가 과외

이들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6학년 2학기에 이르면 ‘예비 중학생반’에서 공부해야 한다. 학원이 학교수업보다 꼭 6개월씩 앞서 가르치는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과외 조사에 따르면 분당, 일산 등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과외 비율은 73.8%로 강남 8학군(61%)보다도 훨씬 높은 전국 최고의 수치다.

분당 S중학교 3학년부장 강모(43)교사는 “중학교 한 반 47명중 40명 가까이가 학원에서 새벽까지 남아있고, 이들중 대부분은 주말을 이용해 과외까지 받는다”며 “경기도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전면 실시되지 않는 한 이같은 병폐는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선무·배한진기자〉

1. 동아일보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0/09/28(목) 18:56

[제모습 잃은 신도시]'비평준화'에 사교육의 천국

정국(11·초등학교 4년) 정환(6·유치원) 두 아들을 둔 주부 송영미씨(36·경기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는 아이들 교육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다.

아직 정국이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있지만 처지는 느낌이 들어 조만간 뭐라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다. 정국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국어 산수 자연 사회 4과목과 영어 글짓기 피아노는 기본이고 체육까지 학원을 다닌다. 한 달에 드는 학원비만 60만~70만원. 정환이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월 30만원 하는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서 각종 학습지를 시키고 있다.

두 아이를 남들만큼 가르치려면 학원비로만 월 100만원이 넘게 든다. 송씨는 “학교수업이 사교육(私敎育) 받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원에 안보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수행평가를 대비해 엄마들이 과열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사교육 천국’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은 등허리가 휘다. 신도시 사교육 열풍은 이 지역의 고교 비평준화가 가장 큰 원인. 분당은 서현고, 일산은 백석고로 대표되는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한다. D유치원—T, N, S초등학교—N, I중학교—서현고, 분당고, 이매고(분당). P, M유치원—O초등학교—O중학교—백석고, 백신고(일산). 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무리하게 사교육비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종합 평가해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내신비중이 70%를 차지하다보니 음악 미술 체육 등 전과목을 잘하지 않고는 명문고 진학이 불가능하다. 학원강사 하수원씨(28)는 “중학생이 되면 종합반 학원은 기본이고 집에서 개인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많다”며 “교육열이 서울 강남지역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고 강조한다. 분당구 정자동과 수내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은 명문으로 소문이 나면서 주위 집값이 다른 곳보다 평형별로 1000만~2000만원씩 올랐지만 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분당과 일산에서는 조기영어 교육붐이 일면서 외국계 영어 유치원 10여곳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평균 비용은 월 50만~70만원이지만 아이들이 몰려들어 성업 중이다.

이런 현상은 학부모들의 높은 학력 수준, 경제적 여유와 무관치 않다. 서현고와 백석고 학부모들의 학력 수준은 대졸 이상이 70%를 차지한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도시의 과열된 교육열은 오히려 신도시를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능력 밖의 사교육비와 과열 경쟁이 싫어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11월 의정부로 이사갈 예정인 이정희씨(37·고양시 덕양구 화정동)는 “내년이면 큰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과열 교육경쟁에 시달리는 분위기가 싫어 의정부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성남지부 김연숙 교육부장(39·여)은 “비평준화로 인해 분당, 일산 등 신도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야 할 시기인 초 중학교 때부터 너무 심한 입시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릇된 교육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교육청 유옥희(柳玉姬)학무국장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교육개발연구원에 평준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과열된 교육열을 가라앉히는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끝—

<성남·고양=남경현이동영기자>bibulus@donga.com

News | Sports | Money&Biz | Enjoy | Life | Kids | NGO |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1999/09/20(월) 18:43

[신도시 리포트]“어느 고교 보내나” 학부모들 속탄다

요즘 경기 분당(성남시 분당구) 일산(고양시 일산구) 평촌(안양시 동안구) 등 수도권 신도시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고교진학 문제로 이만저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

▼명문고 보내자니 내신걱정▼

이들 신도시는 모두 각 고교가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지역. 성적순으로 학교에 들어가다시피 하다 보니 신도시마다 명문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른바 ‘신흥 명문고’가 생겨났다. 분당 서현고 이매고, 일산 백석고 백신고 화정고, 안양시 안양고 등이 그 학교들.

그러나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고교 때의 내신성적과 적성, 인성 등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의 명문고가 대입에서 별로 유리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非명문고는 아이 기죽일까...▼

이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명문고를 목표로 고입준비를 시켜야 할지, 아니면 내신성적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 명문고를 피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중학교 3년생 딸을 둔 윤모씨(45·일산구 주엽동)는 “지난달 대학입시에 유리한 고교진로 선택을 위해 담임교사와 상의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2년생 아들을 둔 분당의 주부 박모씨(42)는 7월 초 고교 평준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를 했다. 명문고와 비명문고를 놓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신도시 탈출’을 감행한 것.

▼“평준화” 목소리 점점 커져▼

최근 신도시 지역에선 고교입시 비평준화제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당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모임, 교육개혁 고양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학부모 대표 100여명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2000학년도 고교입시 전까지 신도시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1999/05/18(화) 14:16

울산시교육청, 울산전역 고교평준화 방침

내년부터 울산지역 전체가 고교 평준화 단일학군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지웅·金知雄)은 17일 울산 전역을 단일학군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고교평준화 계획을 조만간 확정, 25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내 인문계 21개 고교를 단일학군으로 지정해 선발고사에 합격한 학생은 통학거리나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각자 진학을 원하는 고교를 선지망 학교와 제1~3 지망학교로 나눠 지원하면 컴퓨터추첨을 통해 진학학교가 결정된다.

즉 선지망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에 따라 1~3 지망학교 순으로 진학할 고교가 결정된다는 것.

그러나 일부에서는 ‘울산 전역 단일학군제’를 시행할 경우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집중 지원현상이 생기고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평균 통학거리 및 통학시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14일 △울산 전역 단일학군제 △울주군지역 3개 고교를 평준화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 △남구와 울주군을 1학군으로, 동구 북구 중구를 2학군으로 나누는 방안 등 3개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1999/02/25(목) 15:48

[인천/경기] 『학부모 원할 경우 평준화지역 확대 지정』

조성윤(趙成胤) 경기도 교육감은 25일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연합고사 성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반영하는 평준화지역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도내 93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감과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설명회를 열어 학교별로 고입시험을 치르는 비평준화지역과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시킨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안양, 성남시 분당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평준화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학생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교사가 교육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선에서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체벌기준은 상황과 학생 개개인 등에 따라 달리 작용되므로 이에 따른 판단은 해당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1999/02/19(금) 14:47

[전북]군산-익산시 고교입시제도, 평준화 방식 환원

전북 군산시와 익산시의 고교 입시제도가 2000학년도부터 평준화 방식으로 환원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군산시와 익산시의 평준화 환원을 골자로 한 '고교 입학전형 실시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군산과 익산의 고교입시 평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선발고사와 내신성적 등으로 이들 지역의 일반계 고교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뒤 추천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할 계획이다.

평준화지역은 시 군 통합이전의 시지역으로 대상학교는 군산의 경우 군산고 군산여고 군산동고 군산제일고 영광여고 군산중앙고 군산중앙여고 등 7개교이며 익산은 이리고 이리여고 남성고 남성여고 이일여고 원광고 원광여고 등 7개교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시설과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이뤄지면 이들 지역의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평준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기사 분야 : 내고장소식

등록 일자 : 1998/05/19(화) 08:39

[대구/경북] 포항지역 학부모 78% 『고교평준화 찬성』

포항지역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부분은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지회(지회장 김종철·金鍾哲 흥해공고 교사)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포항지역 교사 4백56명과 학부모 6백73명, 학생 8백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교사 가운데 91.7%가 ‘지역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평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학부모는 77.9%, 학생은 82.2%가 ‘고교평준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평준화가 이뤄져야 할 이유로 △입시위주 교육의 해소 및 전인교육 실시 △학생간, 학부모간 위화감과 열등감 우월감 해소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포항지역의 교육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교평준화 실시와 함께 보충 및 자율학습 폐지를 들었다.

전교조 김지회장은 “초등학교부터 고교입시 경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학부모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고교평준화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창조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이혜만기자>

2. 문화 일보

2000년 01월 24일 월요일 11:15 [조길호 기자]

고입 평준화 여부 10월에 결정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안양, 부천, 고양, 분당,과천, 군포, 의왕 등 7개 신도시 지역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 오는 10월말 평준화실시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2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교육시설 여건 조사 ▲주민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분석 ▲공청회 개최 ▲학군 설정 ▲신입생 배정방안 마련 등 평준화전환의 타당성에 관해 전반적인 연구,조사를 벌인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용역결과 평준화 실시방침이 결정되더라도 고입전형 10개월 전에 전형방법을 학생들에게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평준화는 2002학년도 고교입시생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조길호기자>

1999년 06월 29일 화요일 13:48 [유병권 기자]

‘평준화 고교’ 학력신장률 높다

평준화 지역 고교의 학력신장률이 비평준화 지역 고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준화 지역 고교와 비평준화 지역 고교간의 모의수능 평균점수차가 고교3년 때에는 입학당시보다 2배 이상 벌어지는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준화고교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입시전문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평준화 고교 1백64개교와 비평준화 고교 1백69개교 등 전국 3백33개교(특목고와 실업고 제외)를 대상으로 96년 3월과 98년 10월 실시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는 학생들을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 교육하는 비평준화보다 모든 층위의 학생을 한 학교에 모아 공부시키는 평준화가 교육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교 입학 당시인 96년 모의고사의 성적은 평준화지역(2백19.5점)과 비평준화지역(2백15.6점)의 차이가 3.9점에 불과했으나 3년뒤인 98년 모의고사에서는 7.9점(평준화 2백51.8점, 비평준화 2백43.9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평준화 고교는 수능평균점수가 2백19.5점(96년)에서 2백51.8점(98년)으로 3년간 32.3점이 상승했으나 비평준화 고교는 28.3점(2백15.6점→2백43.9점) 올라가는데 그쳐 평준화 고교의 상승폭이 더 컸다.

모의고사 난이도를 조정해 성적향상 여부를 비교해본 결과, 성적이 올라간 학교는 평준화 지역의 경우 51개교(31.1%)였으나 비평준화 지역은 29개교(17.2%)에 불과했다. 반면 성적이 하락한 학교는 평준화 지역은 41개교(25%)였으나 비평준화 지역은 79개교(46.8%)에 달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영일이사는 “평준화 고교의 학력신장이 높은 것은 성적차이가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여 공부하면서 상승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인

반면,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간 뚜렷한 양극화 현상으로 학력이 평준화지역보다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유병권기자>

한겨레/사회/새도시현장 2000년 10월 6일

[새도시현장] ② 입시위주 교육 심화

‘고교 서열화’ 학원 내몰리는 아이들

풍경1 4일 밤 자정께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한국학원 앞 도로.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학원생들이 근처 카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조명 취객들 사이로 무거운 가방에 처진 어깨를 추스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귀가 학원버스나 마중나온 부모들이 기다리는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고 있다.

풍경2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고등학교 교장실. 교장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력없는 선생으로 지목된 교사를 불러 스스로 다른 학교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행정대신을 당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연신 땀을 흘리며 버티던 교사는 치명적인 행정대신이 두려워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만다.

우리 교육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경기도 새도시 학교와 학원 주변의 한 단면이다.

경기도의 교육환경은 전국 최악이다.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최고(42.2명)로 평균(38.7명)을 크게 웃돈다. 또 새도시 인구유입 등으로 올해 초중고 학생수(159만5422명)가 지난해에 비해 4만1천여명 증가했지만, 학교수는 48개(초등 28, 중등 9, 고교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수원과 성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경기도 전체가 아직 비평준화지역으로 남아 특히 새도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과열과외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과외비율(56.9%)은 서울(59.2%)보다 낮지만, 일산·분당 등 새도시(73.8%)는 서울 강남 등 8학군(61%)보다 높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비평준화지역의 고입 전형기준은 중학교 전학년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로 이뤄진다. 따라서 분당의 서현고 분당고, 일산의 백석고 백신고, 안양의 안양고, 부천의 부천고 등 이른바 신흥 명문고에 진학하려면 상위 5% 안에 들어야 한다.

새도시의 경우 고등학교는 서열이 정해지고 인근 평준화지역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까지 몰리는 바람에 탈락한 학생들은 대거 다른 중소도시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형편이 이러니 과열과외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 대학은 입시에서 고교별로 차등화할 방침이어서 명문고를 향한 과열과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도시 학원들은 ‘오전 3시까지 자율학습’ ‘급식 제공’ 등을 내걸고 명문고 특별

반을 운영하는가 하면, 소수 정예반을 비밀리에 운영하며 규정된 수강료의 2~3배씩 받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과외비는 학부모의 허리를 쥐어짠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과외비 총액은 6조7710억9800만원으로 교육 예산의 35% 수준이며, 학생 1명당 연간 평균 86만5천원, 가구당 192만5천원에 이르렀다. 분당 일산 등 새도시 초등학생들의 과외비는 한달 평균 17만34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중학생 자녀를 아예 외국으로 보내 2년 동안 공부시킨 뒤 명문고교에 특례입학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분당 일산 등 새도시지역에선 지난 한해 동안 3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런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공교육을 책임진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학생들은 실력으로만 교사를 평가하게 되고, 교사들은 기초수업의 상당부분을 아예 학원과외에 맡기고 입시지도에만 매달린다.

군포고 이성(39)교사는 “비평준화제도는 초등학교부터 입시과열과 함께 학교 서열화를 불러왔다”며 “명문고 진학이 곧 명문대 입학이라는 학부모의 강박관념이 학생들을 과열과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98년 9월 결성된 '5개 새도시 고교입시 평준화를 위한 학부모 연대회의'는 평준화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올 1월 한국교육개발원에 평준화 실시 여부를 위한 용역조사를 의뢰해 11월말께 평준화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개발원의 중간 조사보고서에서 5개 새도시 학부모 교사 학생의 74.8%가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준화지역의 수능성적이 비평준화지역보다 3년간 평균 12점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발원이 2000년 2월 졸업한 경기도내 고등학생 6701명에 대해 1학년 1학기~3학년 2학기의 3년간 모의고사점수 변화를 개인별로 추적조사한 결과 평준화지역 11개 고교생 3206명의 평균점수 향상은 39.60점인 반면, 비평준화지역 17개 고교생 3495명의 평균점수 향상은 27.61점에 그쳐 11.99점이나 차이가 났다. 고교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식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학교 시설과 학력 수준 차이가 심해 평준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박이선 교육개혁고양시민연대 대표는 “인문계 고교에 한해 평준화를 시행하고, 시설이 미흡한 고교는 특성화 고교로 전환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안교육의 활성화에 있다. 김현수 안산새교육공동체 위원장은 “공교육 기관을 지식분야에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로 정상화시키고 현재 공교육의 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기관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락업소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교육환경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일산새도시 대화역 인근에는 최근 학교 주변에까지 러브호텔이 난립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업지역에 위치해 유흥업소에 둘러싸인 학원의 경우 자칫하면 청소년 탈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이 될 수도

있다.

학부모 이형숙(38·부천 중동 뉴서울아파트)씨는 “초기에 유해환경 시설을 차단해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특별취재반local@hani.co.kr

한겨레/사회/새도시현장

[새도시현장] “학원 안보내면 불안해 하는데…”

“엄마, 우리반에서 ‘독학’하는 애는 나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독학? 너 학교 다니잖니.”

“아니, 학교말고 학원 안 다니는 것이 독학이에요.”

‘독학’이란 뜻이 이렇게 바뀌었다.

중학교 1학년인 딸이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던 모양이다. 반친구 상당수가 학원에서 밤 12시 넘어 집으로 간다는 말에 혼자만 노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들을 보면 마치 옛날 대입 수험생을 보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수험생은 수험생이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입시작전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한다. 교과목 학원은 물론 예체능 학원까지 섭렵해야 한다. 입시를 위한 중학교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이 어느날 말했다.

“○○고등학교 가면 인생 종치는 거래요. 그 학교는 공부 못하는 사람만 간대요.”

“누가 그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학교 가면 어떻게 하죠?”

“...”

서로 존중하라고 아무리 가르친들 무슨 소용 있으랴. 아이들 눈엔 그 학교 학생 모두가 낙오자로 보일 것이 아닌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숨털 보송보송한 아이들이 서로 피터지는 싸움부터 배워야 할 판이니, 그것도 누렇게 때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울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교입시의 평준화가 그래도 필요하다. 김미애/전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부장

한겨레/사회/새도시현장

[새도시현장] 조기유학 다녀오면 명문고 입학 쉬울까

“최선도 차선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이를 교육지옥에서 탈출시킨 것 뿐입니다.”
지난해 분당 새도시 入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아들(14)을 미국 캘리포니아로 보낸 최아무개(4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씨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가 자정을 꼬박 넘길 때까지 학원을 다니는 현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면서 아들을 조기유학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최씨는 아들이 유학을 떠나기 전 교육비로만 다달이 60여만원을 지출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3배 가까운 돈을 보내야 한다. 미국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잡비와 학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씨는 그래도 2년 뒤에 분당 새도시의 명문고교로 알려진 학교에 아들을 특례입학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특례입학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국내 고등학교 정원의 2% 이내 범위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생각한 최씨는 지긋지긋한 입시에서 아들을 ‘해방’시키고 영어교육에도 보탬이 된다는 판단으로 일단 무리를 해 유학을 보낸 것이다.

고등학교가 완전히 서열화된 분당 새도시 지역에서 지난 한해에만 이런 유학을 떠난 중학생은 무려 15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는게 경기도 성남교육청의 분석이다.

성남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나 조기유학을 보내는 돈이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조기유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교 서열화가 부른 또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rpqkfk@hani.co.kr

[Home | 사설칼럼|기획연재|정치경제|사회|스포츠|국제|증권|문화생활|정보통신|만화|전체기사] [↑]

copyright(c)2000